

三國史記·諸王·災異

秦 榮 一*

目 次	
I.	序 論
II.	王權의 '權威' 문제
1.	古代王權: 諸次元의 媒介者
2.	災異論의 배경: 有機體的宇宙論
3.	王權과 '風雨和'
III.	災異論의 範疇的構成과 왕권
1.	'時' 범주와 왕권
2.	'場' 범주와 왕권
3.	'種' 범주와 왕권
IV.	結 論

I. 序 論

「三國史記」를 펼쳐보면, 하늘의 星變, 日月變으로부터, 땅과 물의 變異, 짐승·새·나무·인간 등의 변형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災異 출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 숫자도 三國時代 동안 (B.C. 57~A.D. 935) 천여회에 달한다.”

도대체 재이현상이 당시 삼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기록에 큰 비중을 차지했느냐란 의문이 자연히 떠오른다. 물론 선학들도 이 현상을 못볼리가 없었다. 우선 朴星來 교

* 人文大學 史學科

- 1) 申滄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p.153. 三國의 本紀 내용을 政治, 天災地變, 戰爭, 外交로 나누어 본 결과, 각각 38.2%, 27.4%, 16.3%, 18.1%의 비율로 구성된다. 정치행위(38%)에 다음가는 記事가 災異(27%)이다.

수가 2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재이기록에 관한 논문 연재가 그 선단을 끊었다.”²⁾ 그외에 李熙德 교수가 삼국시대의 天災地變에 관한 한편의 연구논문³⁾을 썼으며, 특히 신형식 교수는 삼국사기 本紀 내용을 분석하여 재이현상과 정치행위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비교 연구하였다.⁴⁾

박성래·이희덕 두 교수는 이이지마 다다오(飯島忠夫)⁵⁾를 비롯한 日人 학자들의 주장, 즉 삼국사기 소재의 천재지변 기사들이 중국 史書에서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설을 비판하여, 대체로 재이관측이 삼국의 독자적인 관측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희덕 교수는 재이사상의 원천을 중국 古代史書, 특히 尚書 洪範五行 사상에 구하여, 양자에 대응하는 재이 기사들은 병치하여 설명했다. 이와는 다르게 신형식 교수는 재이발생과 정치적 주체자인 왕의 직능과를 연관하여 그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필자는 선학들의 이런 업적을 토대로 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 선학들의 논점의 배경을 이룬 것은 주로 재이발생과 정치적 변동의 상관관계를 전제한 것이었다.⁶⁾ 따라서 왜 정치라든지 그 주체적 행위자인 왕과 재이발생이 서로 관련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하는 그 관념적·사상적인 배경이 본격적으로 고찰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王權과 그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권위가 문제가 되며, 바로 재이현상이 왕권의 이데올로기를 담당했다는 가정이 이 논고의 출발점이 된다.

상술한 착상에서 II장은 王者가 왕자일 수 있는 그 권위의 관념적인 토대를 찾아보겠다. 군주는 경제·군사·정치적 제도의 총괄자인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러나 그 힘들을 통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정당성, 곧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그 기능이 당연히 물어져야한다. 여기에 재이현상에 연구의 초점에 맞추어지는 소이가 있다.

III장에서는 중국고전에 의거 배열된 전통적인 五行의 災異論을 무시하고, 그 재이 현상 그 자체에 어떤 논리가 잠재해 있는가를 찾을 것이며, 또한 그것이 군왕의 존재론적 권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아울러 추적할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독자재위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할 필자의 관점이 있다. 즉 왕은 그 왕국에서 지배계층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총체적으로 체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왕권의 총체성을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요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왕조이거나 나 국가는 이데올로기, 정치, 군사 및 경제적 層位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층위는 상호 독자

2) Park, Seong-Rae, "Portents in Korean History",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46, Dec. 1977; No.46~49, 1977~79.

3) 이희덕,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 *東方學誌* 23·24 합집, 1980.

4) 신형식, 前掲書, pp.201~209.

———,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pp.73~110.

5) 飯島忠夫, 「三國史記의 日蝕記事에 대하여」, *東洋學報* 15, 1926, pp.410~424.

6) W. Eberhard, "The political function of astronomy and astronomers in Han china", *Chinese Thought and Institutions* (I. K. Fairbank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pp.30~70. 중국 前漢代에 황제들의 전제권을 전제한 재이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논고 참조.

적이며 새로운 범주와 개념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왕조의 이데올로기는 가장 상층으로, 다음 층위인 정치, 군사적 권력이라든지 가장 낮은 층위의 물질적 생산활동인 경제적 층위의 제요소로 환원하여 설명·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논점에 의거해, 본고의 고찰 영역은 王者의 이데올로기, 즉 군왕 존재론적 기능과 재이 현상에만 한정될 것이다. 왕권의 정치권력이라든지 경제적 이해 문제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고찰 시기는 三國時代(57B.C~935A.D.)이며, 그 史料도 「三國史記」에 한정하겠다.

또 災異論은 유학사상체계에서 形而上學의 부분인 宇宙論의 일부이지, 별다른 하나의 다른 사교체계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漢代 儒家는 유학을 사상계의 지도원리로 삼기 위해 그 당시 유포되었던 대중의 미신적 요소, 즉 道教, 陰陽五行說 및 天人感應說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경전에 결합시켜 사상체계 구성의 완벽성을 기하였다. 재이사상은 실천적인 도덕 부분과 형이상학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漢代 유학에서 바로 도덕 부분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이데올로기였다. 결국 재이사상은 유가사상체계에서도 형이상학적 우주론의 일부가 된다.⁷⁾

끝으로 王者의 관념적 권위와 재이론 자체의 논리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몇 세계 석학의 이론을 빌려썼으나, 그 해석과 적용에도 많은 억지와 오해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古代王權의 이데올로기 해명이란 주제가 필자에게 워낙 벅차고, 변명없이 필자 학식이 천학비재하기도 해서, 본고의 전개와 해석방법에도 많은 무리와 억실이 곳곳에 나타날 것이 분명하니 부디 독자제위의 失笑掩卷이나 변했으면 천만다행이라 여기겠다. 모든 것이 미비되고 무리이나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II. 王權의 ‘權威’ 문제

1. 古代王權：諸次元의 媒介者

우선 君主란 어떤 상징적·관념적 특징을 띠었는지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살핀 다음에 「三國史記」(이후 史記라 약칭한다)에 나타난 고대왕권의 특수한 성격을 구명하고, 아울러 그 권위의 관념론적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王制란, 권력이 한 사람의 인격에 집중되고, 그에 의하여 지배되는 중앙집권적 국가제도이다. 군주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특징은 복합적이고 계층적 내부구조를 갖으며, 또한 여러 계급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집중된 지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樞軸性(pivot)과 總體性(totality)으로서의 상징 역할이다. 그들은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의 이해관계 중재자이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그의 세계간의 매개자이기도 하다. 군왕은 사

7) 니콜라이 하르트만, 「存在學範疇論：實事世界構造」, 하기락 역, 형성출판사, 1987. 諸層位의 독자적 구성에 관한 철학적 考究

회적 코스모스(cosmos)를 지탱한다. 이렇게 그의 지배는, 다수 종교에서 최고 존재처럼 총체성을 상징한다.

군주의 이런 측면에 관한 6개의 상징적인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1) 古代近東과 후기 로마帝國에서는 王座가 설치된 集會場은 우주 자체의 再現으로 구성되었다. (2) 생산의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왕의 역할은 관념적으로 재분배자(redistributor)로 표상되었다. 국왕은 재부의 施與者일뿐만 아니라, 正義의 재분배자이기도 하였다. 즉 군왕은 곡물의 재분배자인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다. (3) 중재자로서 왕의 기능이 그가 주역을 이루는 사회의 모든 부분들과 공평하고 긴밀한 관계에 의해 상징적으로 강조되었다. (4) 초경험적인 힘과 사회간의 매개자로서 왕의 역할은 그의 주술적이며 司祭的인 기능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그 사회와 초자연적인 영역간의 祭儀關係(cultic relationship)에 책임이 있다. (5) 어떤 사회에서는 왕이 활력을 잃으면, 儀式的으로 살해된다. 그는 왕국의 福祉 상징자로서 활동적인 다른 인물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신화적인 왕을 희생제물로 그리고 있는 고대 신화들이 있다. (6) 왕들은 그 종족군대의 사령관들로서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왕의 이런 측면이 王制 연구에서 근대에 자주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왕조창업에 아무리 중대할지라도 전쟁 지도자로서 왕의 개념은 상술한 일반적인 상징체계의 한 특별한 국면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식적 역사·신화 및 족보는, 사제장과 전쟁 사령관으로서 왕의 양면을 교대로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일반적 관점⁸⁾에서 군주의 6가지 상징체계를 살펴볼 때, 「史記」에 나타난 우리 古代諸王과 災異에 관련되어 연구되어야 할 대상은 왕의 사제적 기능에 관한 (4) 항목이라고 하겠다. 「史記」의 제이 기사들을 일견하여 보아도 그것들은 사회와 그외의 어떤 것(自然, 神靈, 祖靈 등)간의 관련구조에도 王者들의 媒介者的 역할에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된 사료를 보면, 神文王은 祖廟에 大臣을 보내서 祖靈에게 致祭하여,

가) (前略) 以至于今 比者道衰君臨 義乖天監 怪成星象 火宿沈輝 戰戰慄若 壁淵谷 謹遣使某官 奉陳不瑣之物 以虔如在之靈 伏望昭察微誠 矜恤眇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敬 禾稼豐而疫疠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清謐 盜賊消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⁹⁾

이라 빌고 있다. 군주로서 신문왕은 天上 星變부터 四季의 순화한 기후, 수확의 풍요, 인간사회의 역병, 衣食·도적횡행 등과 광범위한 연관관계의 그물에 있으며, 특히 재이발생과 군주가 삼가해야 할 몸가짐, 즉 五事(貌·言·視·聽·思)과 깊게 연관되고 있었다.

다른 사료 하나를 더 보자. 憲康王이 신하들과 함께 月上樓에 올라 京都의 번창함을 찬탄하자,

8) 板野長八, “儒敎의 成立”, 「岩波講座 世界歷史」4, 岩波文庫, 1973; Fung Yu-lan,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2, tr. C. Bodde, George Allen & Unwin Ltd., 1952, pp.9~59.

9)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Kingship” 조항, MacMillan & Free Press, New York, 1987. 참조.

10) 「新羅本紀」, 신문왕 7년 夏4월, 이후 「新羅本紀」, 「百濟本紀」 및 「高句麗本紀」를 「新本」, 「百·本」 및 「高·本」이라 생략하였다.

결에 모시고 있던 侍中이 응답하기를,

나) (前略) 上即位以來 陰陽和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聖德之所致也¹¹⁾

이라 아뢰었다. 신하의 생각에도 군주인 현강왕은 단순한 인간적 인격이 아니라, 우주 구성원리인 음양의 조화와 조정에 책임있는 일종의 우주적 인격이며, 왕의 그런 존재의 德으로 자연의 풍우가 때에 따라 순조롭고, 풍년이 들어 백성이 먹고 입을 것이 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기 사료들을 통해서 나타난 고대 군왕의 존재는 단순한 인간 공동체의 총괄적인 首長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 사회를 초월하여, 위로는 천상의 별들, 그리고 자연의 四季 변화 및 그 구성원리를 지배하는 우주의 힘들과 깊숙하게 연관관계의 그물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고체계의 배후에는 순전한 인간의 사회와 생활은 그것들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무엇이든간에 우주의 諸次元의 物象과 생명속에 뿌리를 내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우주의 실재물들, 특히 자연과 인간 공동체간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업이야말로 군주의 역할이라는 것이 당시대 관념이었다. 왕은 우주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연관 그물에서 매개 고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양체계중의 하나에서 變異가 일어난 경우, 그것은 군왕의 인격을 매개하여 다른 한편에 즉자적으로 영향하여 재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재이론의 사고 방식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사료 나)를 다시 보면, 현강왕의 인격은 '陰陽和'와 '風雨順'한 자연현상과 '民足食'하고 '邊境謐靜 市井歡娛'하는 사회현상을 맺어서 양자의 조화를 매개·확보하는 우주적 인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가)에서는 '怪成星象 火宿沈輝'한 자연계의 비정상적인 변조현상도 군주의 '微誠'적인 인격을 매개하여 인간 공동체의 재난을 막아서 '禾稼豐而疫癘消'하는 정상적이고 풍요로운 사회질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군왕의 인격이 단순한 일개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사례를 더 들어서 이를 확인하자.

다) 乃宜德薨無子 群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闕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即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曰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¹²⁾

왕위 추대를 받은 김주원이 집을 나와 궁궐로 가는 도중, 알천 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임금 자리를 놓쳤다. 그대신에 상대등 김경신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자, 오던 비가 그쳤다.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다 하다. 여기에서 왕위란 단순한 정치제도상의 정점으로 권력을 잡은 자는 아무라도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왕위란 우주 자연의 총체의 상징인 '天'의 동의

11) 「新·本」, 현강왕, 6년 9월.

12) 「新·本」, 원성왕, 즉위조.

가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어, 이를 얻은 자만이 앓을 수 있는 신성한 자리였다는 것이 당시 관념이었다.

상술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인이 군주에 대한 관념과 의식형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즉, 고대王者는 단순한 인간적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인간 공동체 상위로 투사되어 우주 자연과의 연관 그물의 일부로서 우주적 인격의 소지자였다 하겠다. 이럴 때 군주는 신하와 백성에게 신성하게 비쳐지며, 이런 왕의 모습이야말로 왕국 지배의 이데올로기 내용을 이룬다 하겠다. 그리고 군주는 그 '신성'한 역할에 의거해 사회전체를 위해 우주적 再生者로 幻想되었다. 바꿔말하면 우주에는 어떤 정상적인 '질서'가 관통되어 흐르는데, 자연체계의 變異는 군왕의 인격을 매개하여 인간사회에 즉자적으로 영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양체계의 한쪽에서 재이가 발생하여 그 질서가 散亂되었을 경우, 군주는 그 우주적 인격의 매개 조정하는 힘에 의하여 그 체계의 조화와 질서를 다시 회복하며 再生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국왕의 존재론적 이데올로기, 즉 '神聖'함이란 것은 우주의 자연과 인간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것을 회복하고 再生시킬 수 있다는 군주의 우주적 '再生者'라는 의식형태상의 幻想을 그 내용을 하였다 하겠다.

2. 災異論의 배경 : 有期體의 宇宙論

또 하나의 논점, 즉 고대인과 현대인의 사고방식 차이점이 묻어져야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료들의 사유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라)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 一首二身 日者曰井水暴溢者 大王發興之兆也 牛一首二身者 大王并鄰國之應也 王聞之喜 遂并吞辰馬之心¹³⁾

왕궁의 우물이 갑자기 넘치고, 인가의 말이 한 머리, 두 몸의 기형인 소를 낳았다. 점쟁이는 우물의 갑작스런 넘침을 대왕의 발흥할 징조이며, 한 머리 두 몸을 가진 소의 출산을 이웃나라를 병탄할 전조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에서 자연현상인 우물의 變異, 동물차원의 변형 및 왕조 국가차원의 모종의 변동들이 서로 분리되어 간격을 이루지 않고, 한 연속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우주론이 엿보인다.

이러한 관념체계는 재이론 연구에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관련 사료들을 더 찾아내 그 의미를 추구하기로 하자.

마) 扶餘王帶素遣使赤烏 一頭二身 初扶餘人得此烏 獻之王 或曰烏者黑也 今變而爲赤 又一頭二身并二國之徵也 王其兼高句麗乎 帶素喜送之 兼示或者之言 王與群臣議 答曰 黑者北方之色 今變

13) 「백·본」, 溫祚王 25년 春2월.

爲南方之色 又赤烏瑞物也 君得而不知之 以送於我 兩國存之 未可知也 帶素聞之 驚悔¹⁴⁾

바) 倭人遣兵船百餘艘 掠海邊民戶 發六部勦兵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金城甚急 夜有流星 隕於賊營 衆懼而退¹⁵⁾

사료 마)에서 한 머리 두 몸의 빨간 까마귀를 얻은 부여왕 대소는 이것을 고구려에 보냈으며, 장차 고구려가 망할 징조라고 심리전을 펴고 있었다. 왜냐하면 陰陽五行 사상에 의하면, 북쪽은 흑색으로, 남쪽은 적색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흑색〔北方〕이 적색〔南方〕으로 변하였다. 여기에서 부여왕은 착오를 범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상술한 사료들을 통해서 당시 자연관, 또는 우주론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곧 여기에는 天文, 동물 및 국가의 실제물들은 각각 그들이 속해 있는 차원들을 넘어 서로 영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차원의 동요와 혼란은 다른 차원들에 즉각 연관된 작용을 하여 거기에서 변이를 일으킨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상술한 관점을 다시 종합해 보면, 우주의 자연과 인간사회의 事象은 자기 자기 차원에 고립·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관관계의 서로 연속해 있는 그물처럼 連續體의인 全一體의 부분들로서 그 상호작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겠다.¹⁶⁾ 자연 차원의 변이 현상, 즉 재이는 인간사회의 영역과 차원에 즉자적으로 영향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왕의 사업과 기능은 양계열의 교란된 사건들을 조화시켜 그 질서를 회복을 매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삼국 고대인의 우주관은 중국 고대문명의 주목할만한 특징과 공통되는 면이 있다. 하버드 대학의 杜維明 교수는 중국 고대문명의 의식형태상,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격을 연속성·전체성·力動性(dynamism)이라 한다. 그는 계속하기를,

하나의 돌맹이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형식들은 모두가 한 연속체의 구성인자들이다. (중략) 이 연속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존재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주안의 어떠한 사물들 사이에서도 이 연쇄관계는 영원히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고대의 세계관, 즉 '연쇄성(continuity)'을 띤 우주관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상 고대사회속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하고 있는 인류 세계관의 기층을 대표하고 있다 한다.¹⁷⁾ 필자는 상술한 사고체계를 일단 有機體的 思考라고 불러둔다.

이 유기체적 사고체계는 17세기 이래로 지난 3백년간 근대 서구세계 및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14) 「고·본」, 大武神王 3년 冬10월

15) 「신·본」, 南解次次雄 11년

16) A. N. Whitehead, *Science and Modern World* (New York, 1950), pp.199~225. 세계는 데카르트적 還元論이나 뉴턴의 力學에서 보는 바처럼 구성요소의 세분화와 환원에 그 작용을 볼 수 있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비독립적인 존재의 不可分の 조화에 의해 구성된 전체다. 또한 세계는 微視界로부터 巨視界까지 부분과 전체가 상호 포용관계를 가진 한 유기적 체계물 이룬다 하였다.

17) 張光直, 「신화·미술·제사」, 이철 역, 동문선, 1990, p.207에서 재인용.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기계론적 우주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과 뉴턴의 기계론적 역학이 결합하여 우주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실재관으로서 자연계를 정신과 물질이란 독립적이면서도 신체적인 두 영역들로 분리시켜 생각하며, 또 거대한 기계적 조립체계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세계관은 우주 事象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부분들은 기계같이 외부에서 연결되어 서로 작용하면서 전체라는 틀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기계 자체는 생명이 없으며, 외부의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局部性을 띠며 원인과 결과라는 順次的인 因果律에 의한다.¹⁸⁾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는, 기계적인 인과율이 아닌 서로 共鳴에 의해 작용하며, 서로 의존하는 연속체로서 생각되는 유기체적 우주론을 이해할 수 없다.

우주 실재물들이 서로 구획되어 단절되어 있다는 기계론적 사고에 의해서는, 상술한 사료들에 보이는 우물의 暴溢, 소의 기형 출생과 대왕의 발흥, 赤鳥의 출현과 한 국가의 멸망, 流星의 낙하와 적병 후퇴라는 事象연관이 쉽게 납득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물질적·동물적·국가사회의 실재물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한결같이 생명과 지능을 가진 존재처럼 운동하고 있었다. 매우 未分化를 그 특성으로 하는 인격적 우주상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상술한 사료들에서 상이한 각 차원의 실재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무원칙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사료 라)에서 '井水暴溢'과 '大王發興'이 서로 대응되었으며, 또 '牛一首二身'과 '并鄰國'이 대조 되었다. 사료 마)의 경우, 黑鳥의 赤鳥에로의 變色이 북방 부여의 남방 고구려에의 병탄이 대응되고 있다. 사료 바)를 보면, 流星 낙하라는 자연현상이 바로 적진의 무너짐을 암암리에 암시되고 있었다. 서로 평행되고 각기 다른 차원의 실재물이 변이를 일으킬 때, 그것은 物化된 형태상의 類同이란 매개를 통하여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무반성적으로 상징적 전이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용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양계열의 事象들이 단지 물상화된 형태상의 類同이란 상징을 통하여 서로 연관되고 동일시 되고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사료들을 들춰보면,

사) 矛川上 有黑蛙 與赤蛙群鬪 黑蛙不勝死 讖者曰 黑北方之色 北夫餘破滅之徵也¹⁹⁾

아) 王夜夢一豹齧斷虎尾 覺而問其吉凶 或曰 虎者百獸之長 豹者同類而小者也 意者王之族類 殆有謀絕大王之後者乎 王不悅²⁰⁾

자) 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 王問之巫者曰 同月輪者滿也 滿則虧 如月新者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或曰 同月輪者盛也 如月新者微也 意者國家盛而新羅衰微者乎 王喜²¹⁾

18) 신과학연구회편, 「신과학 운동」, 범양사, 1989, pp.338. 기계론적 우주관의 참조와 원용.

19) 「교·본」, 瑠璃明王, 29년 夏6월.

20) 「교·본」, 太祖大王, 90년 秋9월.

21) 「백·본」, 義慈王, 20년 6월.

등이 있다. 우선 사료 사)의 경우,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서로 싸웠는데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여 죽었다. 당대인은 음양오행설에 의해 黑은 북방의 색깔이므로, 북방 부여의 멸망의 전조로 여겼다. 사료 아)의 경우, 왕의 꿈에서 표범이 호당의 꼬리를 물어 끊었다. 사람들은, 호랑이는 표범과 동류이면서 더 큰 짐승인데 표범한테 물린 일을 왕족과 신하간에 모종의 갈등관계를 전제했으며, 거기에도 호랑이에 비견되는 왕족의 절멸을 예언했다. 사료 자)의 경우, 백제는 보름달같으며 신라는 초승달 같다는 기와조각이 지하에서 발굴되었다. 무당은 백제가 보름달이므로 장차 기울어질 것이며 신라는 초승달처럼 점차 융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료들에서는 동물차원이거나 자연 事象이 물상화된 형태상의 類同을 통하여 서로 共鳴할 수 있는 존재물이거나 현상이었다.

이렇게 삼국 고대인은 사물의 내적 연관이나 내용을 무시하면서, 모든 事象을 일단 物象화시켜, 그 형태상의 동일성 여부를 묻는 매우 형식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겠다. 「삼국사기」에 등재된 대부분의 재이들은 상호간에 내적 연관상으로 관련이 없는 자연 인간 계열의 事象을 단지 형태상 유동이란 이유로 서로 연계시키는 상징적 轉移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²²⁾

이런 유기체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고체계는 현대인의 그것으로 거의 이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마스 쿤(T. Kuhn)의 이론을 빌어 보겠다. 그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론적인 틀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하여, 인간의 공동된 삶을 전제라 한다. 통상 과학자들은 그들 활동에 근거지워 주는 패러다임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된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기본 패러다임과 모순되는 변칙이 나타나고, 이것이 누적되어 기존 패러다임은 위기에 빠지고,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것을 옮겨감,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그런데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그것은 不可共約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다. 아예 두 패러다임을 비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패러다임은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非累積的 과정이다.²³⁾

상술한 견해에 의하면 아예 역사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지만은, 여하튼 과학이론의 기준이 공동체의 공유된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 그 공유된 판단의 배경인 그 세상이 사라지면, 그 이론이거나 세계관을 이해할 공통 기반이 상실되어 그 세계 이해가 어렵게 되어 버린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힘들다. 본절에서 필자가 추적하고 '유기체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고체계는 어쩌면 현대 연구자들의 이해 빛이 닿지않은 사라져 간 자연과 인간들의 희미한 잔광이거나 소음이 아닐가 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 세계간에는 「사기」에 남은 墨跡 이외에는 근본적인 공유된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22) M. Douglas, 「汚穢와 禁忌」(日語版), 塚本利明 譯 思潮社, 1985, p.139. 원초적 인간이거나 현대인의 행동은 양자 모두가 상징적 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양자의 진정한 차이는 어느 정도 강력한 象徴群이라도 우리는 동일한 상징군을 어떤 맥락으로부터 다른 맥락에 전이시키지 않는 데에 있다. 그 차이는 우리 경험이 斷片化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23) 배리 반즈(B. Barnes) 지음, 정창수 옮김, 「토마스 쿤과 사회과학: 패러다임」, 정음사, 1986.

沈隱 伊滄志貞叛 王與后妃爲亂兵所害³¹⁾

왕이 성색에 빠지고 놀이가 심해지자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자주 재이가 보였다. 이에 인심이 흩어지고 드디어 이찬 지정에게 살해되었다 한다. 왕은 왕조제도의 총괄자일뿐만 아니라, 그의 부절제한 행동은 곧 자연 실재물들에 영향하여 그것들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우주적 인격으로 환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災異論의 範疇的構成과 왕권

1. '時' 범주와 왕권

상술한 것처럼 고대인은 우주 구성에는 모종의 정상적인 질서가 관통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였는데, 재이란 바로 이 질서를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힘, 또는 경향이라고 했다. 우주구성에서 모종의 정상적 질서, 이것에의 부정으로서 재이, 그리고 더 고차적인 질서형성이란 자연적 변증법 과정에서, 反定立(Antithese)이란 중간항의 출현이 바로 재이현상이었다 하겠다. 본장에서는 이 부정하는 힘으로 재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事象의 구성질서를 방해하는지, 또 그것이 왕권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탐색하겠다.

재의 발생범위를 보면, 天文層位(星變 138회, 日月變 79회, 天·雲變 35회)부터 天候 층위(旱·大水·霜·雷 등 352회), 地表 층위(지진·火·地變 137회), 有機物 층위(獸·鳥·蟲·其他變 82회, 樹變 20회), 인간변종(39회), 기타 잡변(鬼鳴·兵器 등 11회, 讒言 2회)까지, 우주 삼라만상에서 재이가 발생하고 있었다.³²⁾ 이런 재이발생의 분류는 자연층위의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여 본장의 탐구목적에 적합하지 못하다.

한편으로, 「史記」소재의 天災地變 기록은, 天人相與說에 근거한 尚書大典 洪範五行傳을 그 사상적 배경을 이룬다. 홍범도행전은 書經 洪範에 그 사상적 바탕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五行·五事·皇極·庶徵·休徵·咎徵·六極이 가장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 항목의 순서에 따라 「史記」의 재이기사와 중국고전의 그것들을 하나하나 대비시킨 논문이 있다.³³⁾ 물론 이 작업은 「사기」의 재이기사와 중국고전의 사상적 원천과 그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여 유익하지만, 이것도 재이현상의 숨은 내재적인 논리를 찾으려는 본고의 목적에는 합당하지 않는다.

필자가 나름대로 「사기」의 재이기사들을 분류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계절과 그것에 어긋나는

31) 「신·본」, 惠恭王, 16년.

32) 신형식(1981), 前揭書, p.185에서 재이별 발생숫자를 재인용.

33) 이희덕, 前揭論文, pp.76~94.

한 부류의 현상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같은 내용과 표현을 가진 사료들이 수없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신라본기에 나오고 시대적으로 선행한 재이 기사를 표본적으로 하나씩 추출하고 나열하였다.

- 가)-1. (남해차차웅, 19년) 冬十月 無氷
- 가)-2. (탈해니사금, 8년) 十二月 無雪
- 가)-3. (지마니사금, 12년) 夏四月 隕霜
- 가)-4. (벌휴니사금, 9년) 夏四月 京都雪深三尺
- 가)-5. (내해니사금, 8년) 冬十月 桃李華
- 가)-6. (일성니사금, 10년) 冬十一月 雷

이상과 같은 유형의 재이들이 「사기」에 무수하게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無氷 11회, 無雪 13회, 隕霜 37회 및 桃李華 10회 등의 재이가 발생했었다.³⁴⁾

먼저 이 재이현상의 공통점을 찾아 보기로 하지, 가)-1의 경우, 음력 겨울 11월인데도 얼음이 얼지 않았으며, 가)-2의 경우에는, 겨울철 12월인데 눈이 안왔다. 또한 가)-3과 가)-4의 경우,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고, 그리고 여름 4월 중에 서울에 눈이 석자나 내렸다. 가)-5의 경우, 가을철에 복숭아와 오얏꽃이 피고 있었고, 가)-6에서는 겨울철에 우뢰가 울렸다. 가령, 겨울철의 얼음과 눈, 봄의 복숭아·오얏꽃, 여름철의 천둥울림, 늦가을의 서리 등, 제철에 일어난 자연현상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어 고대인에게 재이로 여겨지지 않았다. 더구나 눈·얼음·서리·우뢰·桃李花 등 그 자체들은 전혀 재이가 될 수 없었다. 고대인이 상술한 현상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것들이 계절 순행의 맥락에서 모두 제철에 벗어나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재이들은 고대인의 사고 준거틀로서 자연 실재물들의 외부관계로서 연속적 시간³⁵⁾이란 범주를 혼란시키는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한 해와 그 구성인 사계절의 순환이란 시간적 연속은 유기체적 세계란 주위환경의 맥락에서는 자연 실재물들의 질서있는 顯現에 의해 그 흐름의 연속을 포착할 수밖에 없다. 봄·여름·가을·겨울이란 한해의 시간은 오얏꽃·우뢰소리·서리·눈 내림 등에 의해 그 오고 감을 고대인에게 의식되었다. 만일 이 외부적이며 연속적인 관계가 어질러진다면, 이것은 고대인의 시간(자연순행에 준거한 일종의 우주적 時이었다) 범주 구성을 방해하는 일이었다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고대인은 인간사회를 포섭하고 있는 정합적 우주상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준거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계절에 어긋난 자연현상이야말로 재이중 대재이었다고 하겠다.

34) 신형식(1981), 前掲書, p.185.

35) A. N. Whitehead, "Two kinds of time relatedness" *The human experience of time* (ed. C. M. Sherover, New York Univ. Press, 1975), pp.340~341. 순간들의 시간적 연속은 실재물들의 외부적 관계로서 연속적 시간을 포함하며, 연속된 항목들의 본질적 존재의 결과로서가 아니다 한다.

앞서 군주의 존재론적 의미란 우주적 인격으로서 그 질서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재이현상은 바로 이런 군왕의 이데올로기에의 도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재이들 중 시간에 관련된 재이발생이야말로 군주의 바로 존재론적 이유를 부정하는 가공할 현상이었다 하겠다. 왜냐하면 우주구성과 생성의 근본 준거를(인간적 때는 물론 여기에 내포된다) 구성이 그 재이발생에 의해 방해되고 인간도 그 사고의 준거를 잃게되어, 다시 그가 빠져 나온 동물영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앞 재이기사들은 일견 단조롭지만 군왕에게는 의미심장한 배경을 갖었다고 하겠다.

고대군왕이란 우주구성과 생성에 가장 근본인 시간이란 준거를 체현하고 상징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아니, 군왕은 그것이 상징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성과 卽自的 卽融하고 있었다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고대군왕의 탄생은 곧 바로 이런 우주적 時의 現象함을 알리는 鷄鳴聲이기도 하였다.

나) 王夜聞 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邇明遺瓠公視之 有金色小櫝掛枝 白鷄鳴於其下 瓠公遺告 王使人取櫝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奇偉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令瓠乎 乃收養之 及長 聰明多智略 乃名闕智 以其出於金櫝 姓金始 改始林名鷄林 因以爲國號³⁶⁾

탈해왕이 시림 숲속에서 닭우는 소리를 듣고 호공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나무가지에 작은 계가 걸려 있었다. 거기로부터 작은 남자애가 나왔는데, 그 용모가 괴상하고 컸으며, 또한 매우 총명하였다. 탈해왕은 그를 거둬 길러고 그 이름을 알지라하고, 금계로부터 나왔으므로 성은 金氏라 하였다. 시림의 이름을 계림으로 고치고, 이를 국호로 삼았다. 여기에서 닭 울음의 상징성이란, 우주적 혼돈과 암흑이 물러나고 새로운 우주구성의 탄생, 즉 시간의 열림을 뜻했다고 하겠다.

이와 비슷한 또 한 사료를 보자.

다) 高墟村長蘇伐公 望陽山麓羅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居西干辰言王³⁷⁾

고려촌장 소벌공이 양산나정곶에서 말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큰 알이 있었다. 여기로부터 한 애가 출생했고, 6부인은 이를 신이하게 여겨서 왕을 삼았다 한다. 그리고 큰 알이 마치 박과 같았으므로 성씨를 朴으로 삼았다 한다. 朴赫居世가 大卵으로부터 나와서 신라의 시조, 즉 한 국가의 시간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36) 「신·본」, 脫解尼師今, 9년 春3월.

37) 「신·본」, 朴赫居世 卽位條.

유사한 신화가 세계도처에 있는데, 특히 바라몬교 전승에 '우주의 알(卵)'에 관한 것이 있다. 이 우주 알로부터 새벽의 시간에 '불의 神', '창조의 父', 또는 '主', '황금의 胎' 등으로 불리는 창조·태초의 神이 출현한다. 이 우주 알이 우주적 시간의 상징적 표현인 '年'과 명백히 동일시되고 있다.³⁸⁾ 박혁거세의 경우에도 그 語義가 朴:(박:붉, 밝음)과 赫(밝은 핵)으로 '밝음', '빛남', '불', '해(태양)'을 상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박혁거세의 출생은 단순한 인간 아이의 태어남이 아니라, 해와 우주적 時의 나타남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여튼 신라 古代君王들은 우주적 時의 체현자들이었다 하겠다.

이 절의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일견 단순하게 그지없는 '夏四月霜', '冬十二月桃李華', '冬十一月無米' 등의 재이기사들은 군왕의 존재 이데올로기의 가장 근본인 '우주적 時'의 상징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事象이었으므로, 그것들은 매우 중대시되었으며 따라서 반드시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

2. '場' 범주와 왕권

어떤 실재물들이 본래 그것들이 귀속해 있어야 할 일정한 '方域'이거나 '園域'을 이탈하는 부류의 현상들로서 재이들이 「史記」 곳곳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方域·園域' 개념이란 결국 이해하기에 매우 곤란한 空間(space) 범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공간' 범주 문제는 필자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필자는 일단 한 철학자의 '공간'에 관한 사색을 빌리겠다.

즉, 그때그때의 장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그 도구가 차지하는 장소로써, 환경세계적 도구적으로 존재해 있는 도구적 연관이 차지하는 바, 서로 방향이 열려져 있는 여러 장소의 전체에 의거한 데서 규정된다. 장소와 장소의 다양성을 모든 사물이 임의로 사물적으로 존재해 있는 어느 장소라고 해석되어선 안된다. 장소는 그때그때에 어떤 도구가 '그곳에 속하기에 적합한' 특정한 '저기', 또는 '거기'인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도구적 존재자의 도구성격에 대응하는, 다시 말하면 도구적 존재자가 하나의 도구전체로 適所性에 맞게 귀속한다는 성격에 대응한다.

그러나 어떤 도구전체가 차지해야 할 장소를 얻어서 그곳에 속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근거에는 이같은 가능성의 조건으로 귀속할 장소일반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이 귀속할 장소일반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의 도구연관에는 장소전체성이 지시되는 것이다. 도구로서 그곳에 속하기에 적합하는 그 귀속할 장소는, 배려적으로 관심하는 교섭에 있어서 配視의으로 시야속에 미리 유의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같이 귀속할 장소를 우리는 '方域'이라고 부른다. '方域속'이라는 말은 '방향속'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방향속에 있는 어떤 사물의 '園域속'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³⁹⁾

다소 장황한 인용이지만, 여기에 어떤 '方域' 또는 '園域'을 일단 본절에서 '場'에 해당되는 개

38) M. 엘리야데, 「이미지와 심볼」(日語版), 엘리야데 著作集4, 세리카書房, 1988, p.108.

39) M. Heidegger,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 시간공간사, 1991, pp.149~150.

념으로 해 둔다. 다른 한 부류의 재이들은, 실제물들이 그것들이 귀속해 있어야 할 '場'을 떠나서, 다른 '場'속으로 투입함으로써, 도구연관적인 장소전체성이 무너지는 현상과 관련된다.

이에 해당된 사료들은 수많지만, 인용 편의상 「신라본기」 중에 몇 사례들을 추출하자.

- 라)-1. 狐鳴金城及始祖廟庭(내해니사금, 10년 7월)
- 라)-2. 鶴巢月城隅(홀해니사금, 41년 春3월)
- 라)-3. 白狗上于宮牆(진평왕, 53년 춘2월)
- 라)-4. 五虎入神宮園(문성왕, 5년 추7월)

여기에서 여우·황새·흰개·호랑이가 각기 金城·月城·宮牆·神宮 등, 인간영역으로 구획된 성안, 또는 인간사회 중심축으로 상징된 궁궐과 그 담장으로 침입했을 경우에 불길한 징후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것들이 항상 서식하는 들이나 숲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배려적 관심이 있을 수 없었다. 이것들이 원래 배당된 適所를 떠나, 인간사회속으로 투입하여 양자의 각 '場'을 혼란시켰을 때에 재이들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경우, 고대인은 세계인식을 위한 기본적인 준거들의 하나인 공간성(space)을 상실하여, 정합적인 우주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는 극도로 무의미하고, 혼란과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속으로 표류하여 버린다. 따라서 상술한 재이들은 우주의 정합적인 구성과 질서를 상징하는 王者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들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우주 실제물들이 각기 소여된 '場'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그것들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과 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물들은 각기 할당된 '場'에 귀속하면서도 서로 영향과 작동하는 연속체의 부분들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당시 유기체적 세계관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石自移'라 할 수 있는 무의미한 재이기사도 그 배후에는 군왕에 매우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마) 漢山州唐恩縣 石長十尺 廣八尺 高三尺五寸 自移一百餘步⁴⁰⁾

그 길이와 폭이 자세히 관찰된 돌이 일백보나 스스로 움직였다 한다. 돌 하나 자체는 자연 삼라만상에서 지극히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중대한 배려적인 관심 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자연에 의해 할당된 '場'을 스스로 이탈하여 도구연관적인 장소의 전체성과 適所성을 파괴하며, 당시 우주관에 의하면 그것은 국가사회에의 모종의 영향을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즉 이런 돌의 작용과 영향에 의해 인간들의 부여된 '場'으로부터 이탈운동과 그로 인한 국가질서의 파탄을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국가질서의 총괄자인 국왕에게 중대한 상징

40) 「신·본」, 헌덕왕, 8년 춘정월.

적인 의미를 이 재이는 가졌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天災로서 무수한 五緯·彗星·隕星·日月變 등의 재이기는 상술한 '場' 범주 일탈의 재이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 몇 사례를 보면,

바)-1. 有星孛于王良(박혁거세, 9년 춘3월).

바)-2. 太白入太微(남해차차웅, 20년 秋).

등, 무수한 천문기사들이 나온다. 물론 이들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 수단적 문제였다고 하겠다. 이 천문관측이 있게된 근본 목적은 하늘에서 할당된 위치를 스스로 일탈하여 다른 성좌에 침범하여, 하늘 전체의 정합적 '場'을 혼란시키는 별의 운동을 살피는데 있었다 하겠다. 천상에서 이런 변칙적인 운동을 하는 별의 출현은, 곧장 국가사회에 상징적인 전이에 의해 그 질서예의 중대한 교란 가능성이 생각되었다. 물론 이런 天變은 군왕의 존재론적 이데올로기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현상이므로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본절에서 탐색한 재이들이 인간사회에서 갖는 연역적 추론은 다음과 같다. 즉 고대인에게 인간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각자 위치, 즉 사회적 分을 절대로 固守해야 한다. 또한 그에게는 이 '分'은 부정하여 다른 '場'을 찾을 수 있는 자율적 주체성이 원천적으로 우주론에 의해 부정되고 있었다 하겠다. 여기에 군주는 이런 우주론적 참고틀을 固守하는 사업을 그 존재적 본분으로 삼고 있었다 하겠다.

3. '種' 범주와 왕권

'種'에 관해서 다음같이 사전적 定義를 간편하게 해 둔다. 즉 種이란 동종번식이 가능한 서로 관련된 有機體 또는 個體群으로 구성된 類(genus), 또는 亞類(subgenus)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생물학적 분류법의 한 범주이다.⁴¹⁾ 이런 種 자체가 변종된다든지, 또는 다른 種으로 변해버리면, 자연 일반구조와 그 분류법의 경계선을 혼란시키는 현상이 된다. 이 부류의 재이기사들을 모아보면,

사)-1. 楊山有小雀生大鳥(「신·본」 내물니사금, 24년 夏4월)

사)-2. 良里公家牝牛生犢 五脚-脚向上(「신·본」 해공왕, 2년 春正月).

사)-3. 武珍州馬彌知縣女人產兒 二頭二身 四臂 座時天大雷(「신·본」, 현덕왕, 17년 3월).

사)-4. 王都老嫗化狐而去(「백·본」, 동성왕, 23년 春正月).

등이 있다.

41)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Merriam-Webster, 1990, "Species") 참조.

사)-1과 사)-2의 경우, 참새와 암소가 각기 큰 새와 기형인 송아지를 낳고 있었다. 사)-3과 사)-4의 경우, 한 여인이 기형아를 낳자 큰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노파가 여우가 되어 사라졌다. 종 자체에서 변종의 출현이거나 아주 다른 종으로의 변화 등이 재이로 비쳐지고 있었다. 또한 인간 변종이 출현하자 하늘에 감응되어 큰 우뢰소리가 있었다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층위 실재물들이 서로 영향한다는 전형적인 유기체적 사고의 산물이었다 하겠다.

이런 변종 출현은, 각 종이 각각 자기에게 속하는 범주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인간사고의 근본적인 요청을 방해하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종의 분류를 통하여 정합적인 세계상의 구성을 방해하여, 인간지성이 활동할 수 있는 참고틀을 빼앗아버리게 된다. 變種이나 雜種의 출현은 고대인에게 우주의 정상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대재난의 발생이었다고 하겠다.

자기에 귀속된 범주로부터 이탈한 변종이거나 다른 범주와 혼동된 잡종 출현은 神聖하다는 군주의 이데올로기에도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한 인류학자의 말을 빌기로 하자. 즉 聖이란 '神'의 속성이다. 그 어원은 '격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구약성서에서 축복은 모든 善의 원천이며, 축복의 취소는 모든 위험의 원천이다. 축복을 통하여 신이 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일을 변형시키기 위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다산, 가축의 번식, 경지의 풍요 등은 축복의 결과로서 약속된다고 한다.⁴²⁾ 변종과 잡종의 출현은 인간사업의 모든 정초가 되는 세계구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事象이었다 하겠다. 이 경우에 세계는 파멸이었으며, 왕이며 백성이며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었다. 이 현상은 군주에게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상술한 부류의 재이는 단지 種 범주에서 뿐이아니라 우주 구성물 전부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1. 始祖廟前 臥柳自起(「신·본」, 내해니사금, 3년 夏4월).

아)-2. 碧寺蝦蟇食蛇(「신·본」, 애장왕, 10년 夏6월).

자빠져 있던 버드나무가 스스로 일어났으며, 두꺼비가 뱀을 잡아 먹었다고 한다. 이들의 경우, 세계 구성물간에 내재하는 필연적 因果律로서 질서가 부정되었거나 전도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또한 같은 哀莊王代의 재이에 '伏石起立'(동왕 5년 추7월) '釜浦水變血'(동일한 곳), '日食之'(동왕 9년 추7월) 등의 현상이 기재되었다. 스스로 일어난 돌, 피처럼 붉게된 물의 빛, 침식당한 해(日食: 66회의 기록) 등도 넓은 의미에서 種 자체의 變異었다고 하겠다. 기타로서 '月無光', '雨變', '雪變', 水·魚·鳥·馬·牛·人 등, 즉 天文·天候로부터 지상의 모든 有無機物까지 온갖 현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성격의 재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고대인의 관념에서 이런 재이는 군주의 존재론 의미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시 되었다고 하겠다.

42) M. Douglas, 前掲書, pp.105~111.

이 Ⅲ장에서 논의해 온 것을 종합하자. 당시 고대인에게 재이로 생각되었던 事象이란 정합적인 우주상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인간사고의 세 가지 준거를, 즉 '時·場·種' 범주들을 부정하는 힘 또는 경향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우주체계에 만물을 구속하여 질서지우는 모종의 정상적인 질서가 내재해 있었다. 이런 질서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주 실재물들이 각기 할당된 시간·공간·종류에 합치될 것이 요구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지성의 활동 근거를인 세 가지 범주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때 인간사고는 정지되어 무의미하고 혼란된 세계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고대 王者들은 그들의 존재를 이 우주적 참고를, 즉 '時·場·種' 범주들의 상징적 체현을 그 이데올로기 내용으로 삼았다. 왕들은 단지 政體의 정점에 있는 개인 인격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또한 그 정상적인 질서 상징자로서 우주적 인격, 즉 '聖德'을 소주자로서 관념되게 되었다.

IV. 結 論

지금까지 「史記」 재이현상을 고찰함으로써 고대인의 우주론과 고대 군주관을 추적해 왔다. 이 탐색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고대인은 군주를 단순히 인간사회의 정점에 위치한 개인적 인격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 상위로 투사되어 자연과의 연관관계망을 맺는 매개 고리로서 우주적 인격의 소유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한 계열에서 동요는 군왕을 매개하여 즉시 다른 계열에 영향하여 거기에서 재이를 발생시킨다 했다. 따라서 군주는 흠어진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의 소유자로서, 즉 '聖德'의 소유자로서 幻想되었다. 군왕은 이 '성덕'을 그 이데올로기 근저로 삼았다.

(2) 상술한 사고방식은 당시 고대인의 의식형태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즉 하나의 돌로부터 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형식들은 모두가 한 연속체의 구성인자들이었으며, 또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과 영향을 하고있는 유기체의 부분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우주안의 어떤 사물들사이에서도 이 연속성이 영원히 찾아질 수 있다고 여겼다. 본고에서 이런 사고체계를 '有機體的世界觀'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해 두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의 세 기본적 성격은 연속성·전체성·역동성이었다.

(3) 이 사고체계에서 재이들간의 연관방식은 주로 物化된 形態上的 類同를 통하여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무비판적으로 象徵的 轉移를 하고 있었다.

(4) 이런 사고체계는 인격적 우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현대인의 기계론적 우주관과는 그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비연속적이며 不可共約的 패러다임 차이로 인하여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5) 군왕은 파탄된 우주구성의 질서의 조절과 再生者로 관념되었으므로 당시 주력 산업인 농경

에 필수한 天候의 조절자, 즉 '風雨和'의 책임자로 백성에게 나타났다. 한국 古代王者는 祈雨하는 司祭者로서 그 일차적 기능을 가졌다.

(6) 군왕은 정합적 우주상 구성에 절대 필수적인 인간사고의 기본 참고틀, 즉 '時·場·種' 범주들의 상징적 體現者로 등장하였다. 군주는 이 상징체계를 통하여 우주 준거틀로 환상되는 절대성, 즉 '聖德'의 소유자로서 생각되게 되었다. 이것이 군주 이데올로기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 세 범주를 부정하는 재이발생은 우주 준거틀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관념되었으며, 몹시 경계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삼국사기」란 史書에 나타난 古代君主들은 그 지배통치의 관념적 定礎로서 절대 신성성이란 그 존재론적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였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사회를 초월한 우주적 참고틀로 투사되었다. 여기에 한 개인적 인격체인 군왕과 그가 지배하는 인위적인 왕조제도들은 우주자체의 영원성과 동화되어 성스러운 것으로 '聖化'되어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고체계에서는 우주 구성물들이 각기 배분된 '時·場·種'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만일 그것들이 세 범주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세상이 파멸된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이런 사고체계가 갖는 인간사회 층위에서 그 의미는, 인간들은 각기 소여된 사회적 분을 부정할 자율성을 갖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儒家의 형이상학인 災異論은 인간의 능동적 운동성을 인간·자연의 연속체란 당시 우주론에 의해 부정함과 동시에, 인위적인 창조물인 군왕과 왕조제도를 불변 영원한 자연 질서체계로 신성화하여 그 정당성을 얻은 大戰略次元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고 하겠다.

Summary

Samguk-sagi, Kings and Portents

Jin Young-il

According to Samguk-sagi or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the ancient kings created their ontological ideology of the foundation of their rule.

It was the absolute sanctity that the kings wanted the people to think of it. The existence of the kings projected over human society into the cosmic reference-frame.

In this place, a king as personal individuality with the artificial institutions of the kingdom obtained his legitimacy by identifying him with the eternal order of the cosmos.

And the entities of the cosmos had to keep their apportioned "Time, Space, Species" categories of the creation in this thought-system. If these entities went astray from their right categories, then the world should instantly be destroyed, they thought.

The purpose of the portents at the level of the human being emphasized the fact that man had to hold to their given positions, and had no his free choice to take leave of it.

In conclusion, the metaphysical portentography of the Confucians in the three kingdoms negated the freedom of the dynamic movement of human beings by the means of the cosmology which featured nature-man continuum.

It was the strategy of the dominant power that the portentography made the kings with man-made institutions "sanctified", identifying them with the eternal order of the nature.